

에너지·자동차·문화... 성장동력을 키우자

광복 후 전국서 인구 가장 많았던 광주·전남, 산업화 소외로 침체
상생·교류·연대... '義鄉'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융성의 큰 걸음을

광복 70년 창사 63년
광주·전남 미래를 본다

광복 70년, 광주와 전남은 격변했다. 판잣집이나 초가집, 좁은 도로, 촌스러운 간판 등은 고층건물과 아파트, 대로, LED의 화려한 조명으로 바뀌었다. 특히 광주의 변화는 눈부셨다. 바다와 숲, 평야 등 천혜의 자연을 지닌 전남이라는 든든한 토대를 디딤돌 삼아 내륙의 광주는 대도시로 성장을 거듭한 것이다. 이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주축으로 한 문화콘텐츠, 첨단산업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로 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의 '산실'인 전남은 여전히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 미래 주축 산업의 부재 등에 봉착해 있다. 대대로 이어온 섬과 숲을 보존·유지하면서 기능성화합소재와 바이오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바라고 있다. 광주일보의 광주·전남의 지나온 63년을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한', 그리고 '소외'로 이야기하고 있다. 순간순간의 환희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했고, 짧았다. 해방 이후 독보적인 농어업 생산으로, 전국 최대 인구가 거주했던 전남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공업화 정책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편에서 제외됐다. 경제개발의 축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농인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경부선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열망'을 군화로 짓밟은 신군부에 항거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불의

한 총칼에 항거한 광주의 정신을 전세계에 타전했다. 그러나 경제에 이어 정치권력에서도 소외된 광주·전남은 기나긴 침체에 접어들고, 더딘 발전에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다. 축적된 지역민은 무등경기장을 찾아 '해태'를 '목포의 눈물'로 응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쁨의 눈물도 있었다. 1997년 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찾아온 '호남의 봄'은 강렬했지만, 곧 사라졌다. 2015년, 광복 70년은 광주·전남이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실천하며 다시 융성을 되찾아야 할 시기다. 광주·전남, 그리고 전북이 상생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은 그 시발점이다. 광주·전남의 상징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아시아 문화 융합의 장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연생태를 간직하며 접근성을 높인 전남의 섬과 숲을 '세계 일류'로 내놓아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서두르고,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광양항을 아시아의 거점항으로 해 사방이 세계로 열려야 한다. 기술·노동·자본 집약형 산업의 유치와 발굴을 통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재를 불러들여야 한다. 기득권과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창조적인 시도를 통해 실패와 성공을 자신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 문화와 문화의 교류, 기관과 기관의 연대가 자유로이 촉발돼 공동체의 삶이 실현되어야 한다. 광주·전남의 미래는 내놓고, 열며, 불러들이고, 축적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그려질 것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미래 향한 도약

지난 1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전력의 본사 앞에서 20~40대의 젊은 직원 7명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힘차게 뛰어 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3
(1952~2015)

창사특집 28면 발행

광주·전남 성장동력을 키우자 ▶ 3·4·5면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 6면
청년 비정상회담
광주·전남 미래를 말한다 ▶ 7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 11면
호남예술제 60년 ▶ 12면
정론직필 63년 ▶ 13면



혁신도시·지방 공기업의 꿈 ▶ 14·15·16·17면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3인 ▶ 20·21면



'빨간바지의 마법'

영암 소녀 김세영 기적의 연장 이글 LPGA 롯데 챔피언십 우승 ▶ 23면

野,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박차'

발의 D-데이는 23일...수순밟기 돌입
새누리 "대통령 귀국 27일까지 안된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완중 리스트'파문이 정국을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 내에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의 긴장감

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4·29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전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이완구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는 전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

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리고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을 시도하는 등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해임건의안 발의 'D-데이'로는 재보선 전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인 오는 23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 등을 명분으로 내

세우며 야당의 해임동의안 공세에 맞서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장 국무총리가 물러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순방 이후 이 총리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수유동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 "대통령이 안 계시지만 국정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땀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